



5월 5일 '부처님 오신날'

마음속에 '진리의 등' 밝힌다

오늘 저녁 옛 전남도청 앞에서 '빛고을 연등축제'

오는 5월 5일은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초파일)'이다. 광주·전남불교총연합회는 부처님의 자비를 기념하는 행사로 28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구 전남도청 앞에서 '빛고을 연등축제'를 연다. 해마다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제등행진은 불축행사의 백미. 불교에서 연

등(燃燈)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세계를 밝혀 비취주는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고자 불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올해도 약 5천여명의 불자들이 광주 시민이 참여하는 연등행사가 광주 급남로 일대를 밝힌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위원회 기획단장 해향스님(향림사 주지)은 "올해 불축행사는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인 자비와 평등 실천을 위해 진흥탕 속에서도 깨끗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사회의 어두운 부분과 소외된 이웃을 감싸 안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고 말했다.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제1부 연등법회, 제2부 제등행진, 제3부 대동한마당으로 진행된다. 28일 오후 6시 30분 광주공원에서 열리는 연등법회에는 화엄사 주지 종삼스님, 조계종 원로인 향림사 주지 원근스님, 광주·전남 태고종 총무원장 금명스님, 박종영 전남도지사, 박광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다.

식전행사로는 불교 연예인단과 국악 합창단, 불자, 시민이 함께하는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향, 차, 꽃, 등(燈), 과일, 쌀 등 6가지 공양품을 불전에 올리는 육법공양의 예를 올리는 의식이 거행된다.

이어 7시부터는 정광중학교 취타대가 연주하는 전통 음악에 맞춰 광주공원에서 구 전남도청 앞까지 제등행진을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 80여 명이 함께해 부처의 가르침을 나눌 예정이다.

구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9시부터 시작되는 '대동한마당'에서는 영산회 공연, 시민이 함께하는 감강술래, 한 마음 선원 어린이 합창단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린다.

한편 각 종단에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법어를 발표했다. 정진사 추기경도 불자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지난 25일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람 속에 구원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이다. 미혹하면 야차와 보살의 길이 달라지고, 근원으로 돌아 가면 그대들이 부처이다"라며 "어린이 마음속에 천진함이 계시고 한마음 한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아님이 없으니, 날마다 만나는 이웃이 살아있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모두가 마음속에 진리의 등을 밝혀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고,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고를 속에 새살이 돋듯 아픈 고뇌 속에서 빛나는 부처님을 만나자"고 전했다.

가톨릭도 종교를 뛰어넘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추기경은 "우리 세상은 끊임없는 분쟁, 증오와 대립,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면서 "더욱 더 활발한 종교간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모든 이가 인류의 공동선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도 종교를 뛰어넘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추기경은 "우리 세상은 끊임없는 분쟁, 증오와 대립,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면서 "더욱 더 활발한 종교간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모든 이가 인류의 공동선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도 종교를 뛰어넘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추기경은 "우리 세상은 끊임없는 분쟁, 증오와 대립,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면서 "더욱 더 활발한 종교간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모든 이가 인류의 공동선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도 종교를 뛰어넘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추기경은 "우리 세상은 끊임없는 분쟁, 증오와 대립,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면서 "더욱 더 활발한 종교간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모든 이가 인류의 공동선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도 종교를 뛰어넘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추기경은 "우리 세상은 끊임없는 분쟁, 증오와 대립,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면서 "더욱 더 활발한 종교간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모든 이가 인류의 공동선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도 종교를 뛰어넘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추기경은 "우리 세상은 끊임없는 분쟁, 증오와 대립,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면서 "더욱 더 활발한 종교간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모든 이가 인류의 공동선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종교칼럼



최도웅

지금 무등산엔 새로운 생명의 탄성이 한창이다. 이름모를 작은 풀에서 시작해 한참 바라봐야 끝이 보이는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탄생으로 분주하다.

고목 같은 나무에서 뾰족이 입을 열고 올라오는 여러디 어린 연두빛 잎들은 정말 다양하게도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며 "여기보세요"하고 속삭인다. 그 모습을 보니 예쁘다는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꽃이 저거는 산수유 꽃잎 바로 위에 마치 닭 벼슬처럼 올라오는 산수유 이파리! 가을 잎이 미처 다 떨어지지 않았건만 불그스름한 빛을 띠면서, 단풍잎 모양을 그대로 드러냈다.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지만, 아직도 차가운 바람을 헤치고 나온 어린 새 잎의 모습은 신비로움으로 다가온다.

생명의 탄생

햇빛에 반사되어 비치는 새순의 탄생은 보는 이의 걸음을 떼지 못하게 한다. 이 나무의 잎도 바라봐야지, 저 나무의 잎도 봐야지, 도저히 걸음을 옮길 수가 없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했더니, 무등산의 나무들에게 다 있었나 보다. 이렇게 모여서 봄의 알츠를 하고 있었구나. 종종 즐겨들던 봄의 알츠가 예서 살아 숨쉬며, 들으려 하는 이에게만 들려주었던 것이로구나.

그동안 무등산의 새 잎들이 펼쳐는 탄생의 알츠를 미처 듣지 못했던 것이 미안해진다.

이들은 함께 햇빛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만 많이 받으려고 서로 앞을 다투지 않는다. 아래쪽에 있어 빛을 조금 받게 된다고 불평하지도 않는다. 하늘 위로 향해 있어서 빛을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잎을 조금 늦게 피운다고 나무라도 않고, 잎을 먼저 피워서 찬 바람을 맞게 되었다고 불만을 품지도 않는다.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색깔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가슴 벅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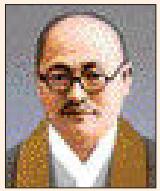
대자연의 웅장한 교향곡을 듣게 된 오후의 무등산행은 생활에 새로운 활기를 넣어주었다.

참으로 신비하기만 하지 않은가! 이들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도 마음이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어주니 말이다.

〈광주 원불교 교무〉

원불교 '대각개교절' 91주년 봉축행사

내달 5일까지 전국 750여 교당 법잔치·놀이잔치 등 풍성



1961년 창시된 원불교가 28일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 91주년을 맞아 5월 5일까지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펼친다.

산 박중빈(朴重彬:1891~1943·사진)대종사가 20여 년의 구도 고행 후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원불교를 개교한 날이다.

올해 봉축행사의 주제는 '모두가 은혜입니다'. 전국 750여개의 각 교당과 기관은 법잔치와 은혜잔치, 놀이잔치로 나누어 봉축행사를 진행한

다. 법잔치는 인류의 상생과 평화, 행복을 기도하는 특별 기도식으로 전국 750여개 교당과 기관에서 일제히 열린다. 대각개교절인 28일에는 익산 중앙 총부에서 좌산 이광정 종법사가 주재한 가운데 대각개교절 기념식이 거행된다.

광주 교당에서도 27일 오후 7시부터 조계종(67) 광주 교구장이 참여한 가운데 봉축기도식과 경축전야제 공연을 펼쳤다. 오는 30일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빛고을 어린이 잔치'를 벌일 계획이다.

/*박선정기자 ksj@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30일 '필리핀 공동체의 날'

천주교 광주대교구 외국인노동자 사목(이재술 신부)이 오는 30일 '제 4회 필리핀 공동체의 날'을 개최한다.

'한 마음 다양한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3시 광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문화제에서는 이주 노동자들과 국제 결혼 여성들이 참석해 필리핀 전통춤과 현대춤 등을 선보인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원동성당에서는 김희중 주교의 집전으로 이주 노동자와 이주 결혼 여성들을 위한 감사 미사가 열린다.

무등 종합사회 복지관

'밤실마을 가족 한마당' 개최

무등 종합사회 복지관이 5월 3일 오후 5시 광주시 북구 두암 주공 4단지 내 야외 공연장에서 '우리아이 희망센터' 개소식을 기념하는 '밤실마을 가족 한마당' 잔치를 연다. 이날 한마당 잔치는 축하 공연과 함께 어린이 그림잔치, 가족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된다.

'우리아이 희망센터'는 두암동 일대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삼성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노년복지지원 노년복지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 송상근 이사장 취임식	노년복지지원센터 노년복지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경희 이사장 취임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관리 건강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단장 새로운 서비스정신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났습니다!!

호텔식 홀저녁 100여 야외도시락	2. 2층 레스토랑
3. 3층 레스토랑	6. 6층 레스토랑